

기 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㉔ - 구읍리 미륵불상(舊邑里 彌勒佛像)

석불의 조성 연대는 고려중기로 추정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 소재지 :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00-1
· 규모 : 높이 4.44m 어깨 폭 1.15m 가슴폭 75cm

이 고장의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 어느날 갑자기 남녀 미륵불 한쌍이 옥계천(玉界川)을 중심으로 솟아나 현재는 여미륵상(女彌

勒像)만 남아있다고 하나 그것이 석불인지는 알 수가 없다. 화강암 1석으로 조성된 이 석불입상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웅대하고 후덕(厚德)하면서도 위엄 있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머리에는 연화문(蓮花文)이 조석(彫刻)된 관모형의보관을 쓰고 그 위에 판석(板石)과 같은 보개(寶蓋)를 얹어 놓았다. 상호(相好)는 원만한 편으로 양미안(兩眉眼)과 비량, 구순 등이 정제(整齊)되었다. 양귀는 커서 어깨 부분까지 길게 흘러 내렸고 목에는 3도가 둘러져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쪽팔에 걸쳐 유려하게 흘렀으며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앞에 들어 엄지와 장지, 약지를 잡았고 왼손은 앞에서 상장(上掌)하고 있다. 동체(銅體)에 있어서 석주형(石柱形)의 인상을 풍기고



구읍리 미륵불상(舊邑里 彌勒佛像).

있음은 조성연대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나 보관 정면에 조각(彫刻)되어 있음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이 석불의 조성연대는 보관과

상호조각 수법으로 보아 고려 중기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설불은 총높이 4.44m 어깨폭은 1.15m, 가슴폭은 75cm이다.

자 · 유 · 기 · 고



장 현 곤
של모루 문화회 회장

포천지식산업진흥협의회 운영위원장

지식산업이란 지식을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지식집약형의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기존의 상품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산업을 말한다. 기술, 특허, 정보, 아이디어 등 지식을 생산하거나 지식을 활용하는 산업이 모두 지식산업이며 정보통신, 금융, 소프트웨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광고, 산업디자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방송, 문화산업, 원자력, 환경, 우주항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보다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또 밥을 만드는 사람보다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보면 공업은 농업을 지배하고 상업은 공업을 지배한다. 한편 상업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지식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되며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 즉 국민총생산에 계상되는 경우만을 지식산업에 국한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지식산업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이 선진국에서는 30%를 넘고 있으며 한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로 여겨진다. 그래서 지식산업사회는 5T라는 5가지 기술로 대표된다. 정보산업(IT), 환경산업(ET), 생명공학산업(BT), 나노공학산업(NT), 문화산업(CT)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 머리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이 바로 지식산업이다. 물론 머리로는 돈을 벌 수 없다. 하지만 몸의 수고로움이 덜한 돈 벌이가 바로 지식산업인 것이다. 우리가 지식산업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부가가치가 높다. 또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많은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는다. 포천의 미약한 산업환경의 풍토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대학에서 학위

를 많이 취득한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사회의 제반 문화적 풍토가 인재를 만든다. 물론 대학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학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 BBC는 전세계에 영국의 특파원을 깔아 놓고 이들이 제공하는 전세계의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뉴스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 뉴스는 전세계로 팔려나간다. 과연 BBC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세계에 깔려 있는 '기자의 네트워크', 그리고 BBC 본사에서 뉴스거리를 취사선택하는 '안목',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재료일 것이다. 기술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중심에는 인재가 있다. 그러한 인재는 어떻게 키워지는가? 영국 현지에서도 뉴스를 보면 거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세계뉴스를 다룬다. 반면에 우리는 국내 정치권의 소식, 지방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국 풍토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연스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 그 결과 영국에서 내는 아이디어는 세계적 수준의 아이

디어가 나올 수 있다. 또 BBC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대학의 학자들이 수십명 동원된다. 예를 들어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기 위하여 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 고고학자 등 수십 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어 이에 대해 탐구한 결과가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결국 시청자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계이 TV 수신료를 내고, 방송은 이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 결과 학자들이 연구할 풍토가 조성된다. 제작된 프로그램은 자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인다. 또 전세계로 상품화되어 팔려나간다. 이것이 바로 지식산업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은 정보산업(IT)이나 생명공학산업(BT)이 아니라 문화산업(CT)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는 우리의 문화적 소재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개인이나 기업도 나름대로의 지원과 참여로 문화사랑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文化는 지식산업의 경쟁력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㉔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

찬성론의 주요내용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범인검거 등 수사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데도 이러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경우 사기의 저하에 따른 업무의 비능률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능한 수사요원의 확보를 곤란케 하고, 경찰수사의 기동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많고, 독립행정관청으로서 흔들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고 한다. 첫째로 수사업무의 요체를 이루는 범인검거의 업무는 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수사의 과학화와 인권보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로 오늘날의 수사는 기동성·신속성, 그리고 광역수사체제가 요구되는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동성을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셋째로 유능한 수사관 지망자가 다수 경찰계로 유입해 올수록 그 능력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로 인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현실성에 적합하며, 수사권을 사법경찰관 중에서도 그 경찰과 법률지식이 높은 총경이나 경정에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현행 수사의 실체를 보면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사범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규상으로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하게 되어 있어 현실과 법규 사이의 불일치를 낳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전체범죄의 약 150여 만 건의 96.7%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수사의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도 범죄발생시 수사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도 괴리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무관행상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합회서기가 신문하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으로 기재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수사개시의 현실이 대부분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시급히 인정 수사개시의 적법성 논란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론적으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관계로 해아리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없으며, 권력분산의 원리에도 충실하다. 국가제도에 있어서 수평적 기관조직의 기본원리는 권력분립과 분립된 권력주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인 조직관계로 조직된 이상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수사체계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범인검거와 증거수집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체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수사미진 등으로 인한 범인의 미검거사회적 비난은 수사권한이 없는 경찰이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사건수사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검사보다 수사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 경찰이 전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언론·여론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지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는 곳에 책임이 있는 모순된 현실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범인제포와 증거수집을 위한 경찰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의 수사활동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경찰의 고유책무에 속하는 일이며, 그러한 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자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시종일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의 검사로 연간 150여만 건에 이르는 범죄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체포·구속사건·기소중지 재기 사건·공안사건·고소사건·변사처리 이외의 불구속사건에 대한 검사지휘는 대부분 송치서류의 사후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변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데, 그 지휘내용은 대부분 사체를 검사하여 사인을 규명하고 범죄현황을 조사하여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으면 가매장이라는 취지이다. 즉 변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체를 검사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대동하여 관계인 진술을 받는 등 검사를 완료하고 보고하여 검사의 형식적 지휘를 사후에 받아 처리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시민께 드리는 글

병술 신년을 맞이하여 포천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포천신문의 안녕을 기원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포천시 화합의 상징물이 될 포천시민대중의 제작사업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제작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鍾)은 1,500여년만의 포천시 승격을 기념하고 시승격 당시의 인구 15만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종각은 포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내려오는 반월산 남측능선에 약 70%의 공정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의 제작도 외부양양 조각을 끝내고 제조를 진행하고 있어 금년 4월 초에는 포천시민대중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유형문화재가 거의 없는 우리 고장의 값진 문화유산으로 100년, 1000년후의 후손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포천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하여서 본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종이야말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포천의 혼(魂)"이 숨쉬는 아름답고 장엄(莊嚴)한 종으로 탄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 사업에 동참하시어 문화와 자연의 도시로 급성장하는 포천의 밝은 미래에 함께 참여하여 주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6. 1

포천시민대중제작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중 규** 드림

■ 기부금 납입 통장 ■

농 협 : 175-12-220873/최중규(포천시대회)
우 체 국 : 100552-01-004052/(포천시대회)
국민은행 : 219401-04-05873.8/최중규(포천시대회)
포천시민대중사무실 : 535-4121